

## “북녘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올려퍼지길”

탈북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 배려 필요

미국 남가주 탈북민 선교단체인 엔키아 선교회(NKIA MISSION 대표 김영구 목사)는 지난 15일 용수산에서 남가주에 거주하는 탈북민들과 함께 송년 모임을 개최했다. 남가주 한인 단체들은 탈북 가정에 각각 500달러를 전달하며 따뜻한 고향의 정을 나눴다.

이날 참석한 탈북민들은 남가주 한인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남북 통일과 북한 복음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을 다짐했다.

탈북민 최 모 집사는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으로 직접 송금되는 돈이 1년에 1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돈은 북한 정권 유지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북한의 실상이 고발되고, 자유 세계에 대해 더욱 많이 알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 집사는 또 “하루속히 북녘 땅에도 성탄의 기쁨이 울려 퍼지길 소원한다”며 “남북 통일과 북한 복음화를 위해 탈북민들이 더욱 힘써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구牧사는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 같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2022 NKIA 탈북민선교회 송년 모임 ©기독일보

라며 “한인교회 각 구역마다 탈북민 한 가정을 품고 그들에게 전화 한 통화, 격려의 말 한마디를 전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 목사는 이어 “70년 이상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아래서 살았는데, 탈북민들에게 우리와 같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문화 차이가 있을지라도 탈북민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배려가 통일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엔키아선교회는 내년부터 장학위원회를

만들어 미주 지역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탈북민 지원과 사역에 관한 문의는 전화 310-404-6219(김영구 목사)로 하면 된다.

한편 이날 송년 모임 감사예배는 박세현 목사의 사회로 샘신 목사의 대표기도 후 크리스마스 전례로 회장 양준호 목사가 “그와 함께 한 자”(삼상22: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양준호 목사는 “우리를 미국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다”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자”고 전했다.

2부 송년행사는 김영구 목사의 사회로 탈북민 홍 모 집사가 아코디언 연주로 멋진 크리스마스 캐롤 연주를 선보였으며, 미주 여성코랄이 은혜로운 성탄 찬양으로 자리를 빛냈다. 또 데이라이프 양로센터 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선보이며 따뜻한 송년 분위기를 이끌었다. 김동욱 기자

## 美 바이든, 결혼준중법 서명... 모든 주에서 동성혼 인정

기독교 사업가들  
소송 위기 직면 우려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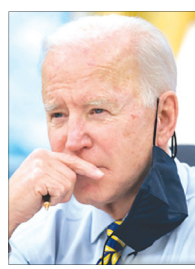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연방법인 ‘결혼준중법’에 서명했다.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하며 모든 의회 절차를 마친 ‘결혼준중법’은,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결혼했을 경우 이혼 성, 인종, 민족을 이유로 금지하지 않고 미 전역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주정부가 동성결혼을 한 부부에게 결혼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한편 결혼준중법이 통과되면서 보수 교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기독교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 라이언 벵거트는 “결혼준중법은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고 소송 위협으로 동성애를 둘러싼 토론을 묵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백악관

리버티카운슬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기독교적 결혼관을 가진 사업주들에게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독교인 사진사는 동성 부부의 사진 촬영을, 기독교인 제빵사는 동성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케이크 제작을 강요당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송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배크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이은상 목사

**예배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 오후 12시  
주일예배 4부 오후 2시  
금융성령집회 금 오후 7시  
새벽기도(화~금) 오전 6시

1615 W. Belt Line Rd, Carrollton TX 75006 972-446-0178

# “예수 안에 은퇴 없어... 선교지에 뼈 묻을 것”

## 효사랑선교회 김중배 선교사 파송예배 드려

김중배 선교사 파송식이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주관으로 지난 17일 효사랑선교회에서 열렸다. 김 선교사는 필리핀 아시아 연합신학교 신학대학원(총장 신종균)에 기술 교육 선교사로 파송 될 예정이다.

김중배 선교사는 1998년 도미해 2004년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후 19년 동안 미 전역을 다니며 아버지학교 사역을 통해 가정 세우기 사역을 감당했다. 지난 2019년부터 효사랑선교회에 학장과 이사장으로 봉사했고, 시온중앙장로교회(담임 이명환 목사) 시무장로로 섬겼다.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도 반대했던 아내의 결단과 하나뿐인 아들 김성이 전도사의 든든한 후원으로 선교를 갈 수 있게 됐다”며 “예수 안에 은퇴는 없다. 선교지에 뼈를 묻는 심정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10년 전 아시아 연합신학교 신학대학원 신종균 선교사와의 교제를 통해 필리핀에 선교 요청을 받았다. 이후 하나님께서 지난 기간 우물파기 교육과 다양한 기술을 교육받게 하시며 선교할 수 있도록 응



효사랑선교회 김중배 선교사 파송예배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답해 주셨다”면서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미쳤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설교를 전한 남승우 목사(One Hope Church담임)는 빌 1장 20-21절을 본문으로 ‘바울의 생관’이란 제목에서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기에 로마에 갈 수 있었다’면서 “김중배 장로님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

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의 생관을 닮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인생을 살 때 후회함과 부끄럼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말했다.

정찬군 목사(예신교회 담임)의 인도로 열린 이날 파송예배는 주창국장로(효사랑선교회 초대이사장)의 대표기도하고 남승우 목

사의 설교를 전했다. 이후 송용희집사의 봉헌기도 후에 황제필 형제(OC 아버지학교지부장)가 김중배 선교사의 약력을 소개했다.

이어진 파송식에서는 김영찬목사와 참석한 목회자가 김중배 선교사를 위한 안수기도 후에 김영찬 목사가 파송패를 수여하고 선교사 파송을 선포했다. 이명환 목사(시온중앙장로교회)가 축사를 전했다, 서건오 목사(OC 아버지학교 지도목사)와 이병일 목사(LA 아버지학교 지도목사)가 각각 격려사를 전했다.

축하 순서에서 김성이 전도사가 ‘사명’을 정찬군 목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찬양을 각각 불렀고, 시니어대학 학생들과 아버지학교 형제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수여했다. 이어 김중배 선교사가 감사하고 정찬군 목사의 광고 후에 박용일 목사(OC 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한편 필리핀 아시아 연합신학교 신학대학원(신종균 총장)은 필리핀 현지 목회자를 배출해 현지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신 총장은 전액 장학금을 통해 현지 목회자를 교육하고 양성하고 있으며, 신학교를 일반대학으로 전환해 냉동,냉장, 에어컨 정비, 미용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가르쳐 각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전망이다.

이인규 기자



동부한인교회협의회 2022년 총회 ©기독교일보

## 동부한인교회협의회, 2023년 신임회장에 송재호 목사 선출

LA 동부지역의 한인교회 협의체인 동부한인교회협의회가 지난 19일 브레이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2022년 총회를 갖고 2022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및 임원선출에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 신임회장으로 송재호 목사(할렐루야한인교회)를 선출하고 코로나 팬다믹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2023년을 도약할 수 있는 협의회를 약속했다.

송재호 회장은 지난 2016년에 이어 2023년에도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팬다믹 상황이 계속 되고 있지만 목회자들과 성도 모두가 교회와 교단을 넘어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와 지역선교의 사명을 다시

강건하게 세우 나갈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회장은 “2023년의 사업 가운데 미자립교회를 돕고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동부지역의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부한인교회협의회는 지난 2월부터 협의회의 이름을 LA동부교회에서 동부한인교회협의회로 바꿨으며 매년 동부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부활주일 연합예배, 광복절 연합기도회, 성탄연합성가제 등의 행사를 통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연합을 도모해 왔다.

송 회장을 도와 부회장은 박선호 목사(늘푸른교회), 회계로는 최현규 목사(남가주 주님의교회)가 섬기게 된다. 이인규 기자

## 미주 장대현 은혜선교회, 부에나팍으로 사무실 이전



장대현 미주선교회 부에나팍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기념 촬영 ©기독교일보

미주 장대현 은혜선교회(대표 김바울 목사)가 부에나팍으로 선교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17일 부에나팍 새선교회 사무실에서 드려진 예배는 김바울 목사가 인도하고 제이콥 김 목사의 대표 기도 후에 마가교회 채동선 전도사가 “모든 것이 형통이다”(시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채 전도사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가 형통의 재료로 쓰신다”면서 “사람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

님께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의 한 페이지를 그리고 계심을 기억하자.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섭리 신앙을 붙들고 나가자”권면했다.

인사를 전한 김바울 목사는 “5년간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모든 예배는 기독교일보 이인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기쁘라 구주오셨네

지금처럼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진유철 담임목사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 Tel. 323-913-4499 lafgcusa@yahoo.co YouTube 채널 - '나성순복음교회' @LAFGCTV



www.lafgc.com

### 예배안내

- 1부 오전 7:30 분당
- 2부 오전 9:30 분당
- (열린예배) 3부 오전 11:45 분당
- (조용기독교 영성예배) 4부 오후 1:30 권사회실
- 새벽예배 월 - 토 오전 5:30 / 분당
-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 분당
-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7:30 / 분당
- 영아부 예배(0-2세) 주일 오전 9:30, 11:45 / 분당 영아부실
- 유치부 예배(3-5세) 수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2층 유치부실
- 유년부 예배 주일 오전 9:30(영어), 11:30(한국어) / 구 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 (AWANA) / 구 교육관
-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 MIG 한어청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 분당
- EM 예배 목요일 오전 9:00 / 구,신 교영육관
- 실버드림대학 토요일 오전 9:00 / 구,신 교영육관
- 토요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9:30 / 구,신 교영육관

# “교회를 위한 신학” 미드웨스턴 졸업식, 한국부 30명 배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은 지난 9일, 캔자스시티 본교 캠퍼스에서 72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13개국 324명의 학생들이 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특히 한국부에서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5명, 목회학박사 1명, 교육목회학박사 3명, 교육학박사 4명, 목회학석사 11명, 신학연구석사 3명, 사역학석사 1명, 사모학교 2명 등 총 30명이 졸업의 영예를 얻었다. 지난 5월에 졸업한 28명을 포함하면, 올해만 58명이 졸업한 셈이다.

이번 졸업식에서 한국부는 5명의 성경사역학 철학박사를 배출했으며, 다음의 주제들로 우수한 논문을 완성, 제출했다.

안상준: 포스트모던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 연구

김현철: 교회론의 발전 단계로 본 종교개혁 연구: 17세기 영국침례교회를 중심으로

김경문: 칼뱅의 교회론적 관점에서 본 김



캔자스시티 본교 캠퍼스에서 거행된 미드웨스턴 72회 졸업식

삼환의 교회론 비평 연구

오선택: 구술문화권의 소통에 관한 연구: 키르기스스탄 마나스치의 음송 훈련을 중심으로

이희석: 디아코니아 해석을 중심으로 한

교회사적 직분론 연구

미드웨스턴의 성경사역학 철학박사과정은 성경적 교회론의 실제적 지향을 위해 21세기 문화 속에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와 문화 모델을 현장 목양사역과 학문적 관점

에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현재까지 15명의 박사(Ph.D.)들을 배출했으며, 수준 높은 논문을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강한 교회의 이상을 제시하는 학위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회학석사 과정을 졸업한 김정은 전도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시작한 미드웨스턴에서 학업을 시작했다. 학업을 통해 성경과 신학, 목회 현장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더 나아가 배움을 사역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침례회(SBC) 산하 신학교 중 하나인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은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중북부 지역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HLC(Higher Learning Commission)의 인가를 갖추고 있다.

김동욱 기자

# “월드쉐어USA가 ‘생명의 빵’으로 우크라이나를 돕습니다”

## 우크라이나 현지 물, 전기 부족 연말연시 생명의 빵 나눔 전개

월드쉐어USA(대표 강태광 목사)가 장기간 된 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위해 연말과 사순절 기간 ‘생명의 빵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생명의 빵 나눔(Sharing Bread for Soul, 이하 SBS)운동은 구호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프로그램으로, 빵(Bread)과 복음(Bible)을 동시에 전하며 아동들과 저개발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다.

강태광 목사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후 지난 10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전쟁의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며 “수많은 사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간 시설의 파괴로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삶은 너무도



월드쉐어USA 강태광 목사 ©기독일보

월드쉐어USA의 우크라이나 돕기 연말연시 사랑의 나눔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지난 9월부터 우크라이나 군중목사인 키르치 목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겨울나기를 특별 지원해 온 월드쉐어USA는 최근에는 화재로 집이 전소된 가정과 전쟁미망인, 고아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강 목사는 이어 “겨울이 다가오면서 경제와 에너지 부분에서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주택의 파괴와 시가지 전투로 집을 나온 피난민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며 “

있다.

한편 강태광 목사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아이티 소망학교와, 수리남 파라마리보 지역 고아원들을 섬기는 SBS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 목사는 기독교 문학 산책 시리즈를 출간하여 책 판매 수익금으로 아이티 소망학교에 교회당을 건축 중이다.

그는 책 판매 수익금 1만 달러를 전달과 함

께 앞으로 계속해서 기독교 인문학 시리즈를 출간하여 아이티와 수리남의 교회당 건축비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5월에는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과 바울의 생애’를 출간할 예정이며, 내년 연말에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정리한 기독교 문학 산책 3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월드쉐어USA가 우크라이나 전쟁 미망인들에게 담요를 전달했다.

## WPC LA중앙노회 2022 송년의 밤 개최



조이풀교회에서 열린 2022 WPC LA중앙노회 송년의 밤

세계예수교장로회(WPC) LA 중앙노회(노회장 김정호 목사)는 지난 11일 조이풀교회에서 2022 송년의 밤을 갖고 노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모인 LA 중앙노회 노회원들은 내년도에는 더욱 힘차게 목회 사역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지역 교회와 선교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한편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산하 페트라대학교(www.petrauniversity.org)는 B.Th, M.Div, D.Min 과정이 있으며 모든 과정의 유학비자(F-1)가 가능하다.

수시입학 및 편입 문의 전화 213-210-3877(총장 김정호 박사)

## 기쁘라 구주오셨네

지금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김지훈 담임목사

1부 전통예배	오전 07:30
2부 찬양예배	오전 09:00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EM 1st Service	오전 11:00
EM 2nd Service	오후 12:45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09: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06:00
영.유아부,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01:30
소망부(장애인)	주일 오전10:3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Phone 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 “Godsends, 전세계 선교사와 자원 선교사 잇는 다리 될 것”

## Godsends 대표 이규성 선교사

갯센즈(대표 이규성 선교사, 이하 Godsends)가 지난 11일, 에반젤리아 대학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Godsends는 전세계 선교사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자원사역자들을 연결해,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선교 플랫폼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비전으로 시작된 Godsends는 웹사이트 Godsends.org에서 현재 사역중인 선교사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자원 사역자들 각자가 동참하고 싶은 사역을 찾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다.

“앞으로의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신의 시간 중에 얼마를 헌신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선교에 동참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규성 선교사로부터 Godsends에 대해 들어봤다.

◆ **선교사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USC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18년간 IT담당 간사로 사역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사와 자원 사역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선교 플랫폼인 Godsends.org를 설립했습니다. 전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실제 선교현장의 사역을 연결해 주어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 **Godsends.org의 역할과 사역은 무엇입니까?**

“Godsends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사님들과 자원사역자들을 연결해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선교 플랫폼입니다. 아마존이 쇼핑을 위한 플랫폼이고 넷플릭스가 영화감상을 위한 플랫폼인 것처럼 Godsends는 선교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다시 말해서 Godsends.org에 방문하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제 선교사역들을 만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그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사역할 수 있습니다. Godsends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하지 않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물 같은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Godsends인 것입니다.”

◆ **Godsends.org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Godsends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것 같은 과정 하나 하나에 세심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역하는 것이 외로워 동역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가장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여러 선교 단체의 놀라운 리더분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Godsends Ministry 대표 이규성 선교사 ©기독교일보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팬데믹 기간 선교를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자금을 토대로 Godsends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다가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장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처음 계획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직접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거든요.”

◆ **Godsends.org는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Godsends를 사용하시는 분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선교사님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고 또 다른 그룹은 그 프로젝트를 위해 자원사역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의 현재 사역에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Godsends에 올려 놓으면 선교에 관심있는 자원사역자들이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선교 사역을 검색해서 동참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Godsends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자원 사역자들이 각자 자신들에게 꼭 맞는 사역을 찾아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난민 사역에 관심이 많은 한 학생이 여름 방학 기간 동안 단기선교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을 찾고 있다면 먼저 Godsends.org에 방문해서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을 합니다. 선교 관심 분야는 난민 사역이고 선교 기간은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영어

교사,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화면과 같이 검색 조건을 설정한 후에 필터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 검색 조건에 해당하는 선교 사역들이 검색이 됩니다.

이 중에 가장 적합한 선교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자세한 내용을 읽어본 후에 등록 폼을 입력하면 선교사님에게 그 내용이 이메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 이메일을 받은 선교사님이 그 학생과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프로젝트의 멤버로 허락을 해 주어 함께 사역을 시작되게 됩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어느 교회의 기도팀에서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면 Godsends에 방문하셔서 선교 지역을 북한으로 선택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 관련 선교 사역들이 검색이 되어 나옵니다.

이 사역들을 살펴본 후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역에 기도 동역자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도제목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메일로 기도 제목이 배달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원하시면 담당 목사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기도 Inner Circle에 가입하게 되면 심사과정을 거쳐 기도팀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은 선교사님께 전달이 되고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이 응답이 되면 기도했었던 기도팀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절차가 전 세계의 언어로 자동으로 번역이 되어 제공되므로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는 선교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 **Godsends.org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선교사님이나 자원사역자들은 Godsends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Godsends는 성도 한 분 한분의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런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 **Godsends.org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서 한 성령님 안에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세상을 말이에요. 이제는 선교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신의 시간 중에 얼마를 헌신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선교하게 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은 헌신자들이 헌신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선교사역에 기도로 동참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케하시고 행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Godsends에 많은 선교사역들과 자원사역자들의 정보가 등록이 된 후에는 사람들이 무언가 선교에 관련된 일을 할 때 먼저 Godsends.org를 방문해서 필요한 내용을 찾게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맞는 새로운 선교의 방법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변해갈 것이고 관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얼마나 지혜롭게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변에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Godsends.org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이나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admin@godsends.org 나 전화 213-458-084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동욱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축 성 탄**

“다시 복음으로” Back to the Gospel

## 미주서부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매주 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교회학교〉  
 유치부 매주일 오전 10:30  
 유초등부 매주일 오전 10:30  
 중고등부 매주일 오전 10:30  
 금요교회학교(한국어교육) 매주 금 저녁7:30

**주소 및 전화**

1880 W 220th St. Torrance, CA 90501 T.(310)328-7020  
 홈페이지: wpca.org 이메일: main@wpca.org  
 인터넷방송: YouTube.com / 미주서부장로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 동부사랑의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40  
 주일예배 3부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한어대학청년부(드림청년부) 오후 2:00  
 금요영성집회 금 저녁 7: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20

**주소 및 전화**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ESCC), eastsarangweb@gmail.com  
 www.eastsarang.org

축 상 탄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roc.com

생명을 살리는 교회

##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 오전 9:30(목)  
 트리니티 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4442 Moulton Pkw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http://www.lagunachurch.com



## 만남의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 오레곤 벨엘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청년부예배 주일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이돈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370 S.W. Shaw St. Aloha, OR 97007  
 T. (503) 649-3990

축 상 탄


##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총회장 : 박문석 목사  
 부총회장 : 진건호 목사  
 총무 : 김선광 목사  
 부총무 : 이현욱 목사  
 서기 : 안선신 목사  
 부서기 : 서사라 목사  
 회록서기 : 조은혜 목사  
 회록부서기 : 김영일 목사  
 회계 : 안정희 목사  
 부회계 : 박준해 권사

감사: 강성수 목사, 주재임 목사, 박정희 목사  
 남부노회장 : 김인철 목사  
 LA노회장 : 엘리야김 목사

교단가입문의 : (213) 272-6031  
 교단사무실 : 680 Wilshire Pl.#307  
 Los Angeles, CA 90005



총회장 박문석 목사



## NKIA COLLABORATION

North Korean in America(엔키아 선교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Kim Young Koo



23425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 sbgc6219@gmail.com

# 美 종교 없는 인구 수, 2017년 이후 둔화세

## 갤럽 보고서 “미국인 5명 중 1명 무교...10년간 제자리”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조사 결과, 종교와 무관한 미국인 인구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갤럽 선임 과학자인 프랭크 뉴포트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무교(nones)인 미국인 수는 1950년대 거의 0%에서 60년간 20%로 증가했으나 2017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뉴포트는 보고서에서 “매년 갤럽 조사에서 평균 20-21%의 미국인들이 공식적인 종교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며 “지난 10년간 연간 증가세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는 종교와 무관한 인구에 대해 “종교적 정체성의 현황을 조사한 수백 편의 학

술 기사, 리뷰 및 책이 제작되었다”라고 덧붙였다.

뉴포트는 “이들 중 대부분은 미국 사회에서 세속화 추세에 일부인 무교인의 비율이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작동한다”면서 “우리는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동향에서 이 추세가 멈출 수 없다는 가정 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결과 “종교성에 대한 다른 척도가 존재하며 모두 같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종교적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도 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여전히 종교적일 수 있다”라며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같은 질문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따라 매우 비종교적일 수 있다”

고 예상했다.

또 “종교성의 다른 척도로 교회, 유대교 회당, 모스크 또는 사원의 회원 수(member-ship)가 포함된다. 추세에 따르면 이 수치는 수년간 감소했다”며 “이는 미국인들이 비록 종교적으로 남아있더라도 공식적인 회원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적음을 나타낸다”라고 했다.

앞서 2020년 2월, 워싱턴칼리지 공공문제 교수이자 공공종교연구소(PPRI) 학자인 멜리사 테크먼도 종교와 무관한 미국인 인구의 둔화 가능성을 보고했다.

테크먼은 보고서에서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인 밀레니얼 세대와 1996년 이후에 태어난 미국인 Z세대가 “종교적 소속과 종교적 행동”에서 “서로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종교적으로 무관하다고 밝힌 Z세대

미국인의 비율은 PRRI의 2016년 미국 가치 설문조사에서 발견된 밀레니얼 세대와 유사하다”면서 “즉, 조직화된 종교를 떠나는 젊은 미국인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결부시키는 것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종교적 소속과 관련해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PRRI는 2020년 동안 5만3백여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종교 인구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인의 25.5%가 자신이 무교라고 밝혔으며, 2019년 24%, 2020년 23.3%으로 점차 감소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 무교인의 비율은 2018년 38%에서 2020년 36%로 줄었다.

김유진 기자

# 美 보수 유권자 61%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닌 다른 인물 원해”

## 대다수 응답자 공화당 후보로 드센티스 지지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과 보수 성향 유권자 가운데 3분의 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인물을 2024년 대선 후보로 지명하길 선호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USA투데이와 서포크대학교 여론조사팀이 최근 1천 명 이상의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 또는 보수 성향 무소속 유권자 374명 중 거의 61%가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추진한 정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대통령 후보와 함께 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3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추구했던 정책을 실행하고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출마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만약 오늘 선거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서 치러진다면 응답자의 47.3%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39.5%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화당 및 보수 무소속 응답자의 64.7%는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024년에 출마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및 보수 성향 응답자의 약 55.8%는 공화당 후보로 드센티스를 지지하는 반면 서로 맞붙었을 때는 트럼프를 33.2%가 지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화로 진행됐으며 전체 유권자 1000명 표본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공화당과 공화당 성향의 무소속 지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백악관

374명의 오차범위는 5.1포인트였다.

서포크대학 정치연구센터 데이빗 팔레올로고스 소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공화당원과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응답자들이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를 점점 더 원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드센티스 주지사가 2024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를 물리칠 가능성은 얼마나 많은 다른 후보자들이 참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美 빌리그래엄 도서관에 ‘김장환 홀’ 생겼다



현당식에 참석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운데), 맨 왼쪽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맨 오른쪽은 故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극동방송

### 13일 노스캐롤라이나 살렛에서 ‘Billy Kim Hall’ 리본 커팅

故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목사를 기념하는 빌리 그래함 도서관에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를 기념하는 기념홀이 지난 13일 헌당됐다고 애틀랜타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살렛에 위치한 빌리 그래함 도서관(Billy Graham Library)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도서관과 센터를 방문하는 이들을 위한 집회, 세미나, 각종 모임에 사용하기와 다목적 홀을 따로 신축했고, 이를 ‘Billy Kim Hall’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Billy Kim’은 김장환 목사의 영어 이름이다.

도서관 측은 “빌리 그래함 목사와 함께 전 세계적인 복음 사역을 해 왔던 김장환 목사나 목사의 공로를 후손들에게 계속 전하기 위해 (홀 이름을 ‘Billy Kim’으로 가져왔다)”고 했다.

김장환 목사는 6.25 당시 미군 부대에서 일하던 ‘하우스 보이’였지만, 그곳에

서 미군 칼 파워스(Carl Powers) 상사를 만나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미국 밥존스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을 거쳐 목회자가 되어 한국에 돌아왔다.

특히 김 목사와 빌리 그래함 목사의 인연은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인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3년 한국 여의도에서 열렸던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에서 빌리 그래함 목사의 통역을 맡았던 김장환 목사는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과 어학 실력으로 집회 성공에 크게 이바지해 주목 받았다고 한다. 그 후 두 목회자는 상호 소통하며 전세계 복음화에 함께 힘써왔다.

한편 ‘Billy Kim Hall’ 현당에는 김장환 목사를 비롯해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존 그레고리 회장(SOW), 글렌 윌콕스 회장(Tower Associates Inc.), 돈디 코스틴 총장(Charleston Southern University), 에드 캐논 사장(FEBC US), 한기봉 사장(한국 극동방송), 극동방송 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강혜진 기자

## ‘성경적 결혼관’ 가진 재학생 처벌한 美 대학, 9만달러 보상합의

미국의 아이다호 대학교가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신념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남학생 3명을 처벌한 데 따른 합의금으로 9만 달러를 주기로 결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아이다호대는 법대 재학생이자 기독교법학회(Christian Legal Society, CLS) 소속인 피터 펠로, 마크 밀러, 라이언 알렉산더와 CLS 고문 교수인 리처드 시먼에게 내린 ‘접촉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이번 합의는 학생 측 법률대리를 맡은 기독교 법률단체 ‘자유수호 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4월 1일, 세 학생들은 성경적 결혼관과 성 윤리를 대변하기 위해 ‘성소수자(LGBT) 비하 발언 사용’에 반대하는 교내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한 여학생은 그들에게 접근해 CLS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관계’라고 믿는 이유에 대해 묻자 학생들은 “성경에서 확인된 결혼과 성에 대한 유일한 견해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회원은 여학생에게 “이 사안에 대해 더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서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잘 이해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쪽지를 건넸다. 그러나 며칠 후 학내 민권 조사국은 남학생 3명에게 회원과 학생 간의 어떠한 대화도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고, 학생들은 지난 4월 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문은 “CLS 회원들은 자신들에 대해 누가 불만을 제기했는지 통지를 받지 못했고, 자신들에 대한 혐의를 스스로 검토하거나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대학은 학생들이 서로 공손하고 중정하게 서로 견해가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해 토론을 허용하는 대신 검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아이다호 지방법원은 대학 측이 재학생 3명에 대한 징계를 판결 전까지 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ve Order)’을 내렸다.

데이비드 C. 나이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대학)의 명령은 원고(학생)들의



미국 아이다호주 모스크바에 위치한 아이다호 대학교. ©아이다호대학교

발언의 관점을 겨냥했다”면서 “피고의 조치가 특정 발언을 억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쪽으로 기운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발언 내용과 관점을 따라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려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했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타이슨 랭호퍼 ADF 고문 변호사는 성명에서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내일의 지도자, 판사, 학교 행정가가 될 것이므로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수정헌법 1조의 자유를 모델로 삼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학 측 대변인인 조디 워커는 CP에 보낸 성명에서 접촉 금지 명령이 “타이틀 나인(Title IX)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원 가능한 조치”라며 “타이틀 나인에 해당하는 불만이 제기될 경우 대학은 학생에게 가능한 지원 조치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2년도 미국 개정 교육법인 타이틀 나인은 연방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남녀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로라 남모 CLS 변호사는 “현재의 정치적 양극화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대학 관계자들이 그러한 대화를 검열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양극화를 악화시키며, 모든 학생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해친다”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 CMF 선교원

결혼교실, 결혼준비교실, 아내교실, 사모교실, 선교사부부축제 MK Celebration, 사랑의 찬양제 CMFN  
www.GodFamily.com



김철민 장로

13459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493-0191

### LA 기쁨의 교회

주일예배 1부 8:00AM  
주일예배 2부 10:30AM  
주일학교 10:30 AM  
청소년 예배 10:30 AM  
English Service 2:00 PM  
금요 찬양예배 금요일 7:30PM  
새벽 기도회(월~토) 6:00AM  
www.thejoylife.org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351-9975 (Fax겸용) e-mail: cometojx@gmail.com



이희문 담임목사

### LA 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수,금)



김성식 담임목사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674-7966

### LA 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차세대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온라인 수요저녁예배 (수) 오후 8시  
새벽예배 월 - 온라인 Only  
화 ~ 토 - 현장 영상예배 (오전 6시 20분)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김기섭 담임목사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den 코너)  
T. (213)386-2233

### 가나교회

주일예배 오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5시:30



안병권 담임목사

1201 W. 255st St, Harbor City, CA 90710  
310-986-9797 ganachurch@hotmail.com

### 구세군나성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 11:2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금요기도회 금 저녁 7:30



이주철 담임사관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90006  
T. (213)480-0714

### 남가주헬로십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전통예배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영어예배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메인예배  
주일학교예배 오전11:30  
중고등부모일 오전11: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혜성 담임목사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남가주기쁨의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유치부주일예배 오전 11:00  
초중고등부주일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45, 토 오전 6:20



이황영 담임목사

25500 S. Vermont Ave, Harvor City, CA90710  
T:(310)326-0300

### 멜리데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유튜브 방송)



고귀남 담임목사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483-6625

### 미주양곡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영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213)380-9377

### 방주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김영규 담임목사

3735 Hughes ave, Los Angeles, CA 90034  
T. (310) 836-8342, (213)663-3301

### 밸리주하나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Youth 성경공부 토 오후 5:30



오정택 담임목사

8131 Tampa Ave, Reseda, CA 91335  
T. (818)794-0691

###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10  
주일예배 3부 오전 12:00  
주일4부예배(청년)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 세리토스 충만교회

Fullness of Christ Evangelical Church  
주일예배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20 (월~금)



김기동 담임목사

18325 Horst Ave., Artesia, CA 90701  
T. (714)262-1428

### 소망장로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성요셉 담임목사

www.somangusa.com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505 LA CA 90057  
Tel. (213)487-2481

### 씨미밸리침례교회

예배속에서, 삶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주일예배 오전 11:15  
주일EM예배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전 10: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45



반채근 담임목사

4868 Cochran St, Simi Valley, CA 93063  
T. (805) 582-1102

### 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남재헌 담임목사

269 Walnut Dr, Oxnard, CA 93036  
T.(805)485-0100

### 은혜로교회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 은혜와평강교회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한어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곽덕근 담임목사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 GEORGIA CENTRAL UNIVERSITY

꿈을 펼치는 대학 사명을 이루는 대학  
GCU SOUTHERN CALIFORNIA EXTENSION SITE  
2100 S. Stimson Ave, Hacienda Heights, CA 91745  
남가주분교 디렉터 : 김병학 박사 213-392-0409,  
claykim@gcuniv.edu  
본교 입학처 : 770-220-7905, admissions@gcuniv.edu

###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 토랜스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 Service Sunday 오전 11:00  
금요 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30  
새벽 기도회(월~토) 오전 6:00



이승혁 담임목사

2531 West 237th Street, Torrance, CA 90505  
T.(310)326-2001/310-989-4381

### 한마음제자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00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1:30  
금요 찬양기도의 밤 저녁 8:00  
새벽기도 (화-금) 새벽 5:30



곽부환 담임목사

500 Shatto Pl, #410 LA, CA 90020  
T. (213) 321-4433

### 효사랑선교회

HyoSarangus Mission

www.hyoarangusa.org



대표: 김영찬 목사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714)670-8004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산교회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나성한미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강지영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인랜드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안정섭 담임목사 벨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美 해군 출신 트랜스젠더 “다시 남성으로 돌아갈 것”



(왼쪽부터) 크리스틴 벡의 해군 복무 당시 모습과 성전환 이후 모습. ©alfredstate.edu

여성으로 성전환했던 미국 해군 출신 트랜스젠더가 다시 남성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11일 폭스뉴스 등을 인용한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Navy SEAL) 출신 크리스틴 벡(Kristin Beck·55)은...

크리스틴 벡은 20년 간 미국 네이비실에 복무했으며, 그중 최정예로 꼽히는 ‘팀 식스(Team Six)’에서 13번의 작전과 7번의 전투를 치르며 많은 훈장을 받기도 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치르며 특수부대원으로서 승승장구하던 벡은 2011년 돌연 은퇴를 선언했고, 2013년 커밍아웃하며 여성으로 성전환했다.

레이저로 수염도 제거해 ‘그녀’가 된 그녀는 2013년 CNN 성소수자 앵커로 유명한 앤더슨 쿠퍼와 인터뷰하기도 했다.

당시 《Warrior Princess: A U.S. Navy SEAL's Journey to Coming out Transgender》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출간했던 벡은...

“어린 시절부터 내 몸은 남성이었지만 마음은 여성이었다”며 “군 생활을 하면서도 성정체성 고민이 이어졌다”고 고백했다.

그는 두 번 결혼해 아들 둘을 낳지만, 가족과 동료들에 알리지 않은 채 성정체성으로 계속 고민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크리스틴 벡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과거 행동을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 인생을 망쳤다”며 “나는 내 인생을 파괴했고, 지금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벡은 7년 전부터 호르몬 치료를 중단했으며, 성소수자 대중화를 위한 선전 수단으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나는 매우 순진했고 홍보 수단으로 이용만 당했다”고 토로했다.

크리스틴 벡은 “미국 전역에 수천 개 젠더 클리닉이 세워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젠더 클리닉에서 ‘나는 말팔랑이야’, ‘이게 나를 편안하게 해’라고 말하면...

심리학자는 ‘오, 당신은 트랜스젠더입니다’라는 진단을 내린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면 다음날 아이는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 이 호르몬은 소아성애자를 의학적으로 거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과 같다”며 “젠더 클리닉은 이 주사를 건강한 13세 어린이들에게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벡은 “성전환은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산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전국에 수천 개 젠더클리닉이 생겨나 지금까지 약 5천만 달러(651억 6천만 원 상당) 이상을 끌어들었을 것”이라며 “젠더 클리닉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를 끼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미국인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대웅 기자

70년대 전설적 ‘美 예수 운동’ 다룬 영화, 내년 2월 개봉



확산에 기여했다.

이 영화는 배우 켈시 그레이머가 척 스피스 목사 배역을 맡았으며, 인기 기독교 드라마 ‘선택받은 자(The Chosen)’에서 예수님을 연기한 조나단 루미가 프레스비역을 소화했다.

또 당시 10대였던 그래픽 로리 목사(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십) 역은 조엘 코트니가 연기했다. 로리 목사는 예수 운동의 영향을 받아 대형 전도집회인 ‘소칼 하베스트(SoCal Harvest)’를...

올해로 32년째 개최하고 있다. 지난 11월 공개된 이 영화의 예고편은 유튜브에서 300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어원은 이번 영화가 2015년 축구 영화 ‘우드론’을 제작하던 중, 1971년 타임스 1면에 ‘예수 혁명’이라고 장식된 지면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7년간 이 운동에 몰두했었다면서 “그 잡지 기사는 암울한 시기에 그저 희망의 빛이었다”며 “지금과 매우 유사한 시기에 자발적인 사랑, 희망, 기쁨의 폭발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영적 각성을 다룬 놀라운 기사”라고 소개했다.

어원은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교회의 많은 부분이 이 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한 가지 예시일 뿐”이라며 “이 운동에서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지도력이 태동했으며, 현대 기독교 음악도 이 운동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이해한 뒤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영화 ‘예수 혁명’이 “비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길 바란다”면서 “방관자적 입장으로 영화를 볼지도 모를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사 용하실 수 있고, 자신도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미국에서 1960-70년대에 일어난 ‘예수 운동’을 재연한 영화 ‘예수 혁명(Jesus Revolution)’이 내년 2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영화의 공동 감독이자 제작자인 존 어원은 최근 남침례회 교단지인 뱀티스트프레스(BP)와 인터뷰를 가졌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예수 운동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각성 운동 중 하나로 평가한다.

어원은 인터뷰에서 “하나님이 독특한 시기에 독특한 방식으로 미국에 나타나신 것 같다”라며 “이 사건은 기독교의 본질을 재발견했다. 이는 실로 소박한 운동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예수 운동은 전통적인 기독교를 따르는 기성세대와 젊은 히피들이 주축이 된 기독교인들을 성공적으로 결집시켰고,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중, 예수 운동의 아버지로 알려진 해럴드 스미스 목사는 캘리포니아주의 LA 갈보리 채플을 열어 히피 문화 이후 방황하던 젊은 세대를 교회로 이끌었다.

또 스미스 목사와 청년들을 이어 준 히피 설교자 로니 프레스비도 이 운동의 전국적인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83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멕시코 선교지를 다녀와서”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필자는 1988년 미국에 들어 온 후 34년 동안 매년 멕시코 선교지를 한 해에도 몇 차례씩 다녀왔다. 멕시코칼리에 위치한 ‘멕시코 민족 장로회 신학대학’의 설립 초기부터 지난 30년간 매년 교회의 단기 팀들을 인도하면서 방문했다. 그런 연계로 지난 2년여간 노회 파송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 신학교 학장 사역도 역임했다. 물론 그밖에 다른 나라들 과테말라, 브라질, 볼리비아 등의 선교지들도 선교 팀과 함께 다녀오곤 했다.

내가 남미 선교지를 오랜 기간 꾸준히 지속할 수 있었던 소중한 만남들이 있다. 하나는 선교 초기에 만났던 현지 초등학교 5학년 생이었던 한 아이가 나에게 정말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던 질문 때문이었다. “쁘르께?”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던 나에게 통역을 도왔던 선교사의 대학생 자녀가 통역해 주었다. “선교 사님! 왜 미국에서 우리한테 와요? 왜 이렇게 선물들을 주어요?”라고 묻는다고 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신단다.” 그 아이에게 그런 대답을 했었다. 그 후 매년 멕시코를 찾을 때마다 우리 신학교 출신 목사가 목회하는 그 아이가 있는 교회를 방문했다. 그 아이는 마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매년 그곳에 있었고, 매년 볼 때마다 성장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우리 선교팀을 도우면서 함께 하였다. 그러곤 고등학교 졸업하고,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우리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 후로도 그는 신학교 훈련을 우수하게 받았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치아파스 지역 목회자가 되었다. 지금은 40대가 되어 지역 노회에서 임원까지 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지금도 그를 만나면 큰 감사와 기쁨을 얻는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 지난주에 방문한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회자로 있다. 필자의 교회에서 그가 신학생일 때 4년간 학비와 생활비 후원을 했었다. 매년 여름 방학 기간이 5월부터 8월까지 긴 기간이라서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교회를 봉사하고 가정일을 돕다가 다시 온다. 그러나 생활 형편이 더 곤궁하여 집에 다녀올 교 통비조차 없는 몇몇 학생들은 신

학교 빈 교정에 남아 학교를 관리하면서 지낸다. 그가 그런 학생이었다. 학교에 남아 단기 팀이 오면 같이 어울려서 단기 팀 일을 같이 하면서 지냈다. 우리 교회가 갈 때마다 함께 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약간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었다. 눈도 시력이 나빠 두꺼운 렌즈의 안경을 끼었고, 양 눈동자도 한 가운데로 몰린 사시인 학생이었다. 그래서인지 강의 때 발표력도 떨어지고, 소극적이었다. 학우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의 큰 장점은 말 수도 없고 약한 느낌이었지만 성실성과 공부에 대한 열정은 강했다. 그를 향해 선교사들이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졸업하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학생에 대한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을 베풀고 계셨다. 졸업하고 학교 근처에 한 교회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여 그가 가게 되었다. 처음엔 교회 일을 관리하면서 지내다가 어린이 부서를 맡아서 전도사 생활을 했다. 그런데 1년이 되지 않아서 어린이 부서가 어른들의 수보다 많아지고 부흥하면서, 교회 부흥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그를 유심히 보았던 한 장로님이 현재의 교회에 그를 추천하였고, 교회가 다름으로 갈라져서 약화되었던 교회에 담임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성공적인 목회자로, 신학교의 교수로,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로 평가받는 귀한 인물이 되었다.

선교지에서의 그런 귀한 만남들이 우리가 선교지를 지속적으로 찾을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 생각해 본다. 필자는 멕시코에서도, 저 중동의 이슬람권 나라의 현지에서도 너무나 소중한 만남을 많이 갖고 있다. 선교 부흥의 원동력은 역시 영혼들과의 귀한 만남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베니스의 부유한 귀족 “브라반시오”의 딸 “데스테모나”는 오셀로로 장군을 사랑했습니다. 오셀로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용맹하고 투르크인과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고, 국가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셀로는 베니스 사람이 아닌 무어인으로 흑인이었습니다.

그의 피부색이나 그의 재산으로는 베니스의 유력자 브라반시오의 사위로는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남녀는 비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데스테모나를 짝사랑하는 로더리고라고 하는 남자가 브라반시오에게 데스테모나가 오셀로 장군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격분한 브라반시오는 두 사람을 원로원에 제소했고 두 사람은 원로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던 도중 적극적인 투르크가 사이프러스 섬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사이프러스 섬을 지킬 수 있는 장수로 오셀로가 지명되어 오셀로는 출정하게 됩니다. 재판은 무죄로 흐지부지되었고, 데스테모나가 오셀로를 사랑한다고 공언하자 브라반시오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면서 딸과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오셀로는 나라의 명령에 따라 사이프러스 전쟁에 출정하게 되고 데스테모나는 남편을 따라 전쟁터로 떠나려 했습니다. 데스테모나를 흠모했던 로더리고가 실망하자 모사꾼 이야기가 그에게 찾아가 자기가 도울테니 데스테모나를 포기하지 말고 전쟁터로 같이 가자고 합니다.

오셀로 장군의 신임을 받는 부관 캐시오는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화술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캐시오를 이아고는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자신이 캐시오 보다 뛰어나지만 오셀로에게 신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분노하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셀로와 데스테모나, 부관 캐시오, 로더리고 그리고 이아고가 사이프러스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에 도착해서 전쟁을 대비하던 중 섬을 침입해오던 투르크 함대가 폭풍우에 침몰해 전쟁이 끝났습니다. 오셀로 부대는 승전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 경비 순찰을 캐시오가 맡았습니다. 이아고는 캐시오를 취하게 만들고 로더리고와 싸우게 만들었습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이때 베니스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사신은 캐시오의 사이프러스 총독 임명과 오셀로 장군의 귀국 명령을 전했습니다. 착한 데스테모나는 캐시오의 복권을 기뻐하는데 오셀로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오셀로는 자신이 아닌 부관이 총독이 되는 것도 이것을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즐겼습니다. 오셀로에게는 질투심을 충동질했고 로더리고에게는 캐시아를 죽여야 데스테모나를 갖게 된다고 충동질했습니다. 오셀로는 데스테모나에게 불륜을 추궁하다 목 졸라 죽였습니다. 한편 로더리고가 캐시오를 도발해서 둘은 결투를 했고 서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아고는 로더리고를 죽였고 캐시오를 죽이려 했지만 캐시오는 오셀로를 찾아와 원망하며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죽습니다.

데스테모나의 죽음을 알게 된 에밀리아는 오셀로에게 갑니다. 그녀는 사모님은 정숙한 여인이었다고 말하며 자기 남편의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죄 없는 아내인 데스테모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셀로는 자신의 어리석은 질투심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충실한 부하까지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살하였습니다.

교활한 인간 이아고 역시 재판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그의 악행이 드러나 사형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상은 거칠게 간추린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의 줄거리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오셀로를 통해 인간의 공통심리인 “질투”를 질펀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셀로가 ‘질투’ 수렁에 빠지는 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질투의 출발은 흑인이요 무어인이라는 그의 열등감이었습니다.

오셀로 ‘질투’가 깊어질 때 악한 인물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교활한 이아고는 캐시오의 승승장구를 질투했고, 로더리고는 데스테모나를 차지한 오셀로를 질투했습니다. 이들이 악하게 쟁투하며 질투를 심화 시킵니다.

또 주목할 것은 질투의 결과입니다. 질투에 눈이 먼 오셀로는 아내의 사랑도 부하의 충성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목 졸라 죽일 만큼 질투에 불타했습니다. 질투는 맹목적이고 질투는 파괴적입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dvertisement for 2022 Midwest Christian University Fair, featuring various institutions like Talbot School of Theology,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World Mission University, and others.



장재호 목사의 은혜의 샘

#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1)

고린도전서 4:1~13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불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뻐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7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중략)...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9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11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12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13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의 입장을 생각하여 더 나은 자격, 떳떳한 자격,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해서 교회에서 맡긴 직분과 직책을 충성하고 그 성과로 보답하는 목적으로 교회는 운영되어져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은교회를 1970년 10월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고, 진리 안에서 하늘소망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여러 모양으로 직분과 직책을 맡겨 오셨습니다. 그 중에 중심에 간절한 소원을 목적으로 하나님 더욱 잘 섬기자고 애써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아직까지 걸들면서 내세소망의 믿음의 확신이 없어 눈치보아 가며 적당히 교인행세는 하지만 성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한심하고 안된 생각에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려면 영감적인 설교를 듣고 회개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소망의 은혜와 사랑이 뜨겁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이 인도하심따라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교회조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와 신앙노선이 일치하고 영감적인 체질신앙이 일치해야하고, 또 성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목양시간에 일치하는 믿음으로 잘 받들어 나갈 수 있을 때, 교회는 힘 있는 교회, 건강한 예수님의 몸을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 2.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일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군이라는 말은 헬라어 '휘페레타스'로 종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를 이르는 말입니다.

교회의 목자도 하나님의 일군이십니다. 목자로 더불어 성령으로 거둔단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직책을 맡으면 그 시간부터 예수님을 위한 '휘페레타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항상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인다는 위협 속에서도 그의 입술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피투성이가 되고,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지고, 온 몸에 쇠사슬이 묶인 상태인데도 밤중에 실라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곳에 지진

을 일으키시어 감옥이 다 허물어지게 만들고 그를 때린 간수장이 바울에게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며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입장을 완전히 초월하여 영적인 소망에 취하여 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사도바울과 같이 교회에 필요한 일은 직접 하기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저 또한 하나님의 '휘페레타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섬기고, 교회와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양시간에 영적소망을 더불어 가꾸면서 그 믿음이 진정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내세소망의 목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목자와 모든 것이 일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고, 이 목자에게 계신 성령이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하기 때문에 공감(共感)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를 통해 하나님이 사기시는 일들에 여러분들도 함께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목자의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조력자가 되고자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을 때, 영적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몸이라 했습니다. 새끼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 몸이 통증을 느끼는 것은 신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교회는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고통에 처해 있으면 하나의 성령이 신경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고통을 모두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모두가 '휘페레타스'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듯 교회의 직분중에 장로가 가장 높다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그 직분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로, 찾아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성실히 충성된 종노릇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단에 있는 '비밀'이라는 말은 '무스테리온'인데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공개된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직 덜 알려진 부분,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란 이 교회의 직분자들과 직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은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기대와 소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세움받은 종들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거듭난 사람과 같이 옛사람과 그 행실은 다 없어지고 생각이 건전하고,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성실함으로 확실히 달라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일군의 자격을 얻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아들을 희생시켜서 택하신 백성들로 성령의 계시를 따라 구속의 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파송 받아서 성령이 하늘나라 데려가게 만드는 계획이 구속사관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생활 해온 사람들이 확실히 복음화 되어진 생활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전도의 성과도 있는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 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위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들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30년간 사고당장서 만약유시엔 판매단위 판매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찰밥 오뎅떡볶이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강준민 칼럼

# 나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로버트 브라우닝은 “나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저는 “다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다시”라는 단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새로운 은혜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축복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의미합니다.

며칠 전 스가라서를 읽다가 “다시”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라 하라 하니라”(슥 1:17). 한 절의 말씀 속에 “다시”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때 멸망했던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택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번영케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

는 분이십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3).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소망을 품고 살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미래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가락에 맞추어 춤출 수 있습니다. 루벤 알브르스는 “희망을 품는다는 건 미래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품는다는 건 그 가락에 맞춰 춤추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됩니다.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을 상실했다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서서 성공하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갈등 때문에 결별했던 두 사람이 다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이 끝났

다고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우리가 찍은 “마침표”가 “쉼표”가 됩니다. 그 “쉼표”로부터 다시 새로운 미래가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자리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가슴에 품고 사는 명언 중에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음란한 죄와 우상숭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죄는 파멸을 낳습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결코 죄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의 은혜는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용서를 통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 과거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후에는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렘 31:34).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죄를 온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을 때 회복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을 때 새 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는 고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 하셨습니다. 용서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값진 은혜입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겔 36:37상).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에 다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구봉주 칼럼

## 기도제목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겠지만,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매년 송구영신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제목을 적어 성경책에 보관하며 한 해 동안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용지를 나누어 드립니다. 실제로 송구영신예배 때 기도제목을 적으시도록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새벽기도회 때에 그 기도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제목들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고 나아가 갈 기도제목들입니다. 그렇다면, 서도 여러

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인 지금 그 기도제목들을 응답 받으셨습니까? 모두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몇몇은 진행 중인 일들입니까? 아니면, 기도용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기도제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5가지 기도제목을 썼었습니다. 그 기도제목들 가운데 한 가지는 전년도에 온전히 응답 받지 못한 기도제목을 다시 써놓은 기도제목 한 가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에 모조리 응답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나올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크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제목들 가운데 한 가지는 저의 개인적인 신앙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11월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 소명과 사명감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 심령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작은 기

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횡수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크리스천들은 수동적으로라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을 받고 간증을 나누는 사람은 그에 비해 적습니다. 그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진심어린 기도입니다. 진심어린 기도와 그렇지 못한 기도의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눈물을 담고 있을 만큼, 부르짖을 만큼 간절한 기도인가? 기도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지속적인 기도인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살피고 기다리는 관심어린 기도인가? 기다림 끝에 응답 받았을 때, 몹시 기뻐하며, 하나님께 지극히 감사하는 기도인가?” 사실, 기도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가 했던 기도가 진심어린 기도였는지 그렇지 않은 기도였는지 나

중에 알게 됩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기도라면,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기뻐하고 환호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다면, 그 순간은 간절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에만 관심을 둔, 기복신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생활 기도생활도 다시 점검하고 매무새를 다듬어야 합니다. 흐트러지면 안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며, 특권입니다. 신중하고 진지하게 다시 기도제목을 써 내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한 해를 사서서, 연말에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감격과 감동에 젖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b>원서접수</b>	2022년 11월 1일 마감
<b>지원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li> <li>-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li> <li>-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li> </ul>
<b>수업기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li> <li>-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li> <li>-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li> </ul>
<b>수업장소</b>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mailto: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진유철 칼럼

피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이 2007년 처음 공개될 때 손안의 컴퓨터가 된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정말 놀랄 정도로 다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은 손안의 컴퓨터가 되어서 온갖 검색을 다하고, 영화를 비롯한 모든 영상들을 다 보고 듣게 되고, 물건도 사고팔고, 네비게이션도 되고, 은행 업무를 비롯한

모든 결제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만큼이나 적응하기 어려운 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압호를 바꾸라고 해서 바꿨더니 갑자기 압호가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하고, 여기저기서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하니 불편을 넘어 무기력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부적응 때문에 오는 것인데, 변화가 너무 많이 빨리 다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기후를 비롯한 자연의 변화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삶의 패턴의 변화 등이 너무 급속하다 보니 이전에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공황장애나 여러 우울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미국에서는 소아양극성 장애(조울증)가 무려 40배나 증가했고, 자폐성 진단도 20배나 늘었고, 불과 한 세기 전 6가지에 불과했던 정신장애는 이제는 200여 개에 이른다

니다.

이렇듯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하여질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민을 나가 엄청난 변화와 여러 고난들을 만났지만 피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15:6) 자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환난과 결박을 만난 바울의 승리비결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행27:25절) 죄수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의 힘이나 선장과 선주나 선

원의 경험이나 환경과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바울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의지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됩니다. 실제 사막 광야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길이 생기지만 큰 바람 한 번 불면 지형 변화가 일어나 길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으로 만든 지도가 아니라 북쪽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나침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나침반 같은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기공의회 후 새로운 직임과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는 피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주 자주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기원 드립니다.

기고

1932년 이후 연변조선족자치주 건설까지

-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사명 (10)



김 종 덕 목사  
TIS(Trinity In Society)  
연구소장

일제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위해 1932년 3월 1일 청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부의(溥儀)를 집정(執政)으로 추대하여 '만주국'을 건설한다. 일제는 1937년 7월7일 만주 병합까지 건설을 계획하고 요녕성 심양, 단둥일대 16개 현, 간도지역 23개 현에 조선인 1만호씩 매년 강제 이주시킨다. 그 결과 1941년에서 1944년 사이 조선 농민 6만 4,887명이 중국동북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1930년에 60만 명에 달했던 한인(韓人)의 인구가 1940년에는 1백45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제는 조선인 사립학교 관리를 강화하여 조선인에게 인문과목 보다 기술과 실업과목을 장려했다. 조선인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조선역사와 조선어 교육을 금했다. 조선인을 일제의 2급 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었다. 급기야 일제는 조선인 사립학교 100개교 이상을 폐교한다.

◆ 조선인 인권보호 및 반일 시위운동  
1912년 이상용, 이회영, 허혁은 '부민단(

扶民團)'을 조직하여 길림성 동남부에 위치한 통화현(通化縣)에 그 본부를 두고 민사(民事), 형사(刑事) 등 모든 조선인의 법률문제와 민족간의 분쟁을 담당하여 조선인 인권 보호에 심혈을 기울였다.

1919년3월1일, '대한독립만세운동'이 서울에서 시작해 한반도 전지역과 전세계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중국동북지역에서도 3월과 4월 중 14만여 명의 조선인이 독립운동시위에 참가한다. 5월12일에는 경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길림의 조선인 청년 학생들이 대중과 함께 길림성 의회 앞에 집결했다. 1919년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연변의 4개 현에서 도합 50여 차례의 반일(反日)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10만여 명에 달했다. 이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

1919년 4월11일, 상하이에서는 '3.1 독립선언서'와 '3.1 운동'에 기초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미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수립되었고, 같은 해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외에 국내의 8개의 전단정부(傳單政府)가 수립되자 이를 통합 할 필요를 느껴 1919년 9월 11일 '한성정부'의 범통을 계승하고 '대한국민의회'를 개헌형식으로 흡수 통합하여 상하이에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1924년과 이듬해인 25년 하반기 사이에, 동북지역에서도 각 항일 민족주의 단체들이 3개의 부(府)로 조직을 통합해 조선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항일 독립운동에 힘을 모았다. '참의부'는 공화정 체제의 정권을 수립하

였고, '정의부'는 의회정치와 삼권분립 형식을 취했으며, '신민부'는 김혁을 교장으로 성동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500 여명의 별동대와 보안대를 편성했다. 삼부(三府)는 중국 정부에 그 자치권을 승인받지 못해 정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 채 정부로서가 아닌 하나의 단체로서 활동했다. 비록 삼부가 조선인 자치권을 쟁취하지 못했지만, 동북지역 조선인 반일(反日) 근거지 형성을 위해 노력했음을 인정하는 바이다.

◆ 해방이후, 동북지역 조선인

1945년 일본의 패전 직후, 항일운동지도자나 독립운동가들은 속속 한국에 귀국했다. 그러나 가난한 농민들은 그동안 지어 놓은 농작물을 추수하지 못해 떠날수 없었다. 이렇게 망설이다가 머물게 된 사람도 있고, 경작지를 재분배하고 조선인을 소수민족으로 평등하게 대우해 주겠다는 중국공산당의 약속을 믿고 돌아가지 못한 농민도 상당수였다. 연변에서 태어나 장년이 된 조선인 대부분은 연변에서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떠나지 못했다. 남한에 고향을 둔 조선인들은 세계정세가 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 갈 수 없었다.

소련군이 1946년 3월7일부터 중국 동북지역에서 철수하자 같은 해 4월부터 국민당군과 공산당군은 요녕성에서 본격적인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이때 한인들은 토지개혁을 비롯한 소외 계층과 소수민족을 지지하는 모택동 노선을 지지하며 공산당을 도와 해방전쟁에 참여한다. 한인들이 국민당에 대항해서

공산당을 지지한 이유는 국민당은 한인(韓人)을 차별하여 한교(韓僑)라 부르며 귀국을 종용한 반면, 공산당은 일찍이 한인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국민당과 결탁한 토비(土匪)들이 양민들을 약탈할 때 한인들은 공산당과 함께 대항했다. 한가지 안타까운 일은 중국공산당에 편입되면서 독립운동의 성격이 중국을 돕는 활동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인구비례로 볼 때, 중국의 56개 민족 중에서 한인(韓人)은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신중국을 건설하는데 공헌을 많이 세웠다. 연변을 위시하여 동북3성 전역에서 해방전쟁에 참가한 한인의 수는 중국동북지역에 거주한 100만 조선인 중 64,942명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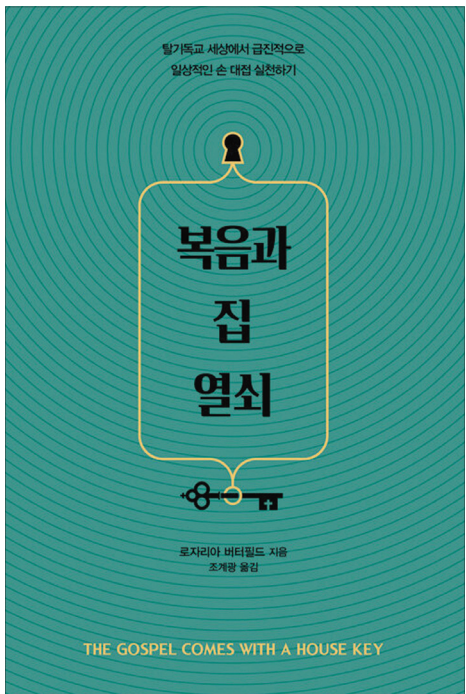
이러한 전쟁 속에서 목숨을 잃은 한인은 3,550명이나 되었다. 이런 희생의 댓가로 이주민족이었지만 토지개혁, 정권건설, 해방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공민의 자격을 당당히 얻을 수 있었고, 신중국을 건설하는 핵심민족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1949년 '연변종합대학'이 설립되었고,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건설되었다. 이때부터 중국 내 조선인을 '조선족'이라 불렀다.

하지만 모택동의 '반우파투쟁(1957)'과 '문화대혁명(1966-1976)'으로 연변지역 조선족은 많은 박해를 받았다.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이 실용주의 노선인 등소평 체제를 선택하고 민족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 융합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조선족이 자치주 내에서 '한글'과 '한민족 고유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자유로워졌다.

Advertisement for PRO-Z Gold. Includes text: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and '특별 행사 SALE'.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급진적이면서 일상적인, 복음과 손 대접

# 수고하고 무거운 이웃들이여,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라



직장, 사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복음은 상당히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이어지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한다.

로사리아 버터필드는 이 급진적이고 일상적인 복음과 집 열쇠(손 대접)를 연결시켰다. 그녀의 책 <복음과 집 열쇠>에서 '탈기독교 세상에서 급진적으로 일상적인 손 대접 실천하기(부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간증을 통해 보여준다.

외향적이고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실천하기 좋은 것 같은 '손 대접'은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명령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뜻이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으로, 그의 백성은 마땅히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신 10:18-19).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책임이 있는 일꾼들의 자격에 "나그네 대접"이 요구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며(딤후 3:2; 5:10; 딤후 1:8),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한다(히 13:2).

저자 버터필드는 이제 국내에서도 제법 유명 인사가 되었다. 페미니스트에 레즈비언 영문학 교수였던 과거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이자 엄마가 된 놀라운 변화가 그녀를 유명하게 했고(저서인 <뜻밖의 회심>과 <뜻밖의 사랑>에 자세히 나온다: 아바서원, 2017, 2018),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 등에서 다른 여성 저자, 강연자와 함께 훌륭한 여성 사역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과 집 열쇠>는 전작과 유사하게 신학 서적이기보다 신앙서적이다. 버터필드는 독자에게 신학을 정리해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복음이 맺는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 실제로 복음이 자기 삶에 일으킨 변화를 소개하며 교훈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급진적으로 일상적인 손 대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탈기독교 시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영적 맹인, 길인, 병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인 이웃의 굳게 닫힌 문을 열어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손 대접이다.

그래서 복음은 집 열쇠와 함께 전달된다. 누구나 그 열쇠로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와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환대와 위로와 친교를 복음과 함께 대접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돌 곳 없으신 분이셨지만, 자신을 찾아온 큰 무리를 붙잡고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그들을 대접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진 자들은 예수



©로사리아 버터필드.

님의 집에서 쉬를 누릴 수 있었다. 사람의 모양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종의 형체 다른 말로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사셨다.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대접하는 삶을 사셨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독한 개인주의 사회로 바로 옆집에 살아도 대문을 통과해 이웃의 삶으로 들어가기 무척 어렵다. 자기 문제와 인생에만 몰두한 삶의 방식은 단지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갖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아 하는 이기심마저 양산한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킨다. 우리 일상을 바꾼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얼마나 결핍된 인생이었는지, 힘이 없고 좌절하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지 알

기에, 또 주님을 만나 우리가 얼마나 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은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에, 이웃의 궁핍한 삶 속에 뛰어든다.

<복음과 집 열쇠>는 저자 버터필드의 일상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그리고 그녀의 일상엔 항상 손님이 있다. 그 손님에게 그녀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따뜻한 그녀의 대접과 함께 강력하게 전달된다.

하나님은 바로 그 대접을 통해 세상을 급진적으로 또 매일의 일상을 통해 변화시키고 계신다. 이 책을 읽는 독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한다.

조정희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복음과 집 열쇠

로사리아 버터필드 | 조계광역 개혁원실천사 | 352쪽

손 대접에 힘쓰라는 성경의 명령은 어떤 의미인가?

기독교의 손대접(환대)은 단순한 배움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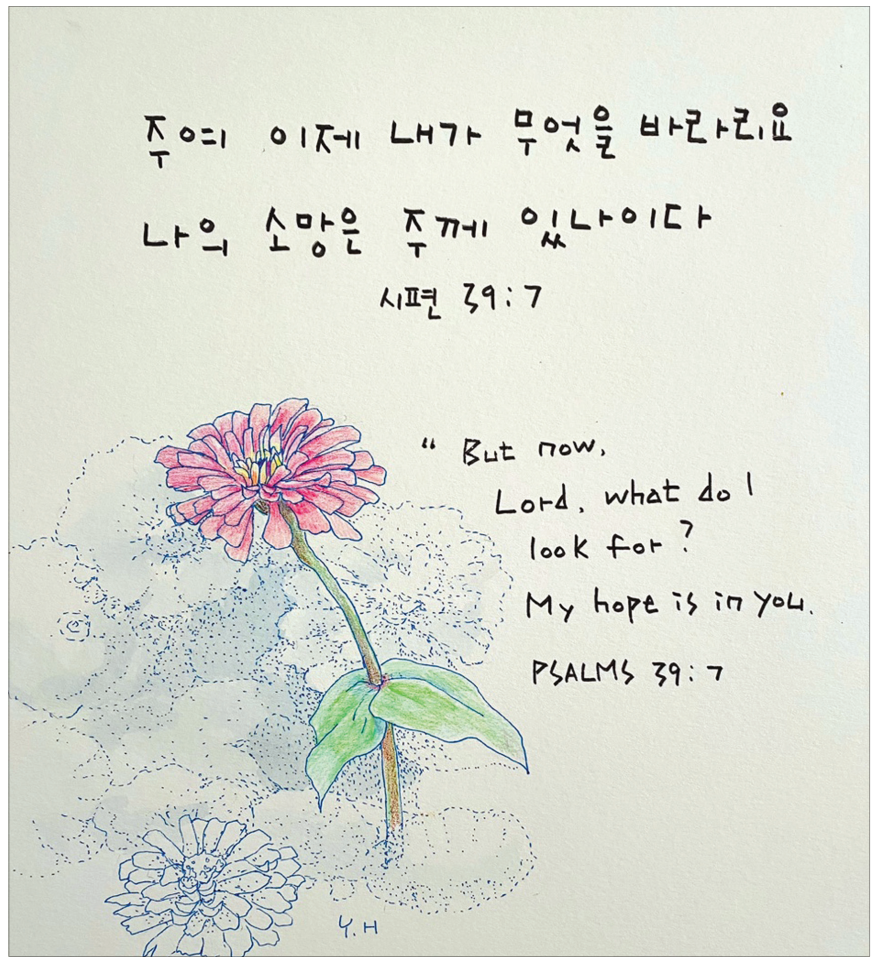
'급진적'이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다.

복음은 급진적 변화를 가져온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린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자녀가 된다. 믿음 없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불순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순종의 자녀로 바꾼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은 믿음을 통해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동시에 복음은 일상적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말하는 것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며, 행하는 것이 달라진다.

복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도록 만든다. 가정,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 축 성 탄

## 사우스베이 목사회

### 소속 교회 및 기관

- |                              |                    |
|------------------------------|--------------------|
| New Creation Church (김관중 목사) | 가나교회 (안병권 목사)      |
| Jesus World Church (배용환 목사)  | 산샘교회 (윤석형 목사)      |
| 토랜스제일장로교회 (고창현 목사)           |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    |
| 가디나장로교회 (신태섭 목사)             | 토랜스선한목자교회 (이승혁 목사) |
| 나성샘물교회 (권대근 목사)              | 한인소망교회 (윤 목 목사)    |
| 토랜스조은교회 (김우준 목사)             | 성서장로교회 (정충일 목사)    |
| 남가주살롱교회 (김준식 목사)             | 남가주기쁨의교회 (이황영 목사)  |
| 서부장로교회 (김진주 목사)              | 가디나선교교회 (이호민 목사)   |
| 울타리선교회 (나주옥 목사)              | 코너스톤교회 (이중용 목사)    |
| 남가주어노인팅교회 (남상권 목사)           | 에벤에셀교회 (최경철 목사)    |
|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              | 시온연합감리교회 (오경환 목사)  |
| 코이노니아선교회 (박종희 목사)            | 토랜스주님의교회 (이영희 목사)  |
| Jesus World Church (배용환 목사)  |                    |

회장 고창현 목사

## 인랜드교역자협의회

### 소속 교회 및 기관 명단

- 갯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
- 남가주 헬로침교회 (박혜성 목사)
- 두란노교회 (손상현 목사)
- 백두암 강변선교회 (박종길 목사)
- 성경성구 전달사역 선교회 (최열리 목사)
- 연약교회 (최요셉 목사)
- 에덴선교교회 (윤석길 목사)
- 인랜드교회 (안 환 목사)
-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 (조강왕 목사)
- 한울림교회 (류수열 목사)
- Grace Silver Ministry Center (최병수 목사)
- Repair Servant Ministry (마원철 목사)

회장 윤석길 목사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아바타 2: 물의 길>(2)

# 아바타: 인체 개조와 생명 연장에 대한 디즈니식 환상

PC이념, 다양성 존중 내세워 자연 본성과 원 모습 보호  
디즈니 SF 영화들 기술 활용 인간 개조 관대한 건 모순  
그 이유 이윤 추구와 함께, 다원성 가치 자체 모호성 탓  
성경, 인체 개조 엄히 금지 확고한 윤리적 기준 제시해

◆디즈니와 기술문명: 정치적 올바름 이념과  
첨단 기술문명의 만남

<아바타> 1편 제작과 개봉은 20세기폭스가 맡았다. 당시까지 20세기폭스는 미국의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 산하 자회사였다. 그러나 <아바타>의 후속편(2편과 3편) 촬영 막바지에 접어든 2019년에 20세기폭스는 월트디즈니 스튜디오에 의해 인수되어 디즈니 자회사가 되었다.

디즈니 경영진이 <아바타> 시리즈의 서사나 연출에 함부로 간섭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지난 성과와 명성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디즈니 측은 원래 <아바타> 시리즈가 지니고 있던 흥행력, 그리고 자연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높게 평가하여, 이번 <아바타: 물의 길> 흥행에 많은 힘을 들이고 있다.

물론 이 작품의 제작비가 영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총 제작비 4억 달러, 한화 약 5,200억 원)도 디즈니가 이 작품의 흥행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원래 디즈니 스튜디오는 가정, 어린이, 판타지 중심의 서사를 주로 삼는 콘텐츠 제작에 주력해 왔던 까닭에, SF 쪽으로는 거의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지만 2005년 밥 아이거가 디즈니의 CEO로 취임한 후 단기간에 할리우드의 SF 장르를 지배하는데 성공했다. 2009년에 <아이언맨> 시리즈로 커다란 성공을 거둔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고, 2012년 <스타워즈> 시리즈 판권을 가진 루카스필름을 인수해 미국 내 SF 장르 영화계의 절대강자로 올라섰다.

디즈니가 자사의 SF 영화에 담은 메시지는 사실 현재 디즈니가 콘텐츠 제작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PC) 이념과는 상충되는 면이 많다.

정치적 올바름 이념은 각 사람이나 생물이 자연적으로 지니게 된 원래 모습과 본성을 다양성 존중이라는 명분 하에 보호하도록 가르친다. 디즈니가 추구하는 정치적 올바름 이념의 관점에서는 이것이야말로 각각 누리야 할 삶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디즈니 산하 SF 프랜차이즈 영화들은 인공지능 기술과 인간복제 기술을 활용한 인간 개조에 대해서만큼은 무한히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

각 인간이나 생물이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원래의 신체를 기술적으로 조작하고 재구성해서 장애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는 일을 온당하고 희망적인 일로 묘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아이언맨을 필두로 하는 마블 엔터테인먼트 캐릭터 상당수는 첨단기술로 개조, 강화된 몸을 가지고 초인적 능력을 발휘해서 세계를 지키고, <스타워즈> 시리즈에서는 복제인간인 클론들이 은하 공화국의 군사력을 담당하며, <아바타>에서는 아예 새로 제작된 몸으로 인간의 정신을 옮겨 놓는다.

물론 이 설정들은 디즈니가 마블 엔터테인먼트, 루카스필름, 20세기폭스를 인수하기 전에 정해진 것으로, 디즈니는 여기에 관여한 바 없다. 하지만 디즈니는 각 프랜차이즈를 인수한 이후 인간을 개조·강화·복제하는 SF 설정을 이어나갈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설정들을 더 강화하고 다변화해 서사를 창안해 나간다.

◆디즈니의 내적 모순: 삶의 자연적 다양성과 상충되는 인간개조 기술 예찬

디즈니의 이런 행보는 회사가 앞세우는 정치적 올바름 이념에 담긴 다원주의적 동기를 의심하게 만든다. 삶의 자연성을 주장하면서도 기술에 의해 조작되고 획일화되는 삶을



올해 디즈니가 내세우는 마지막 흥행 기대작, <아바타: 물의 길>.

수용하고 환영하기까지 하는 디즈니의 이중적 태도는 이 회사가 제작하는 영화, 드라마 속 메시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디즈니가 이런 자가당착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이윤추구이다.

겉으로는 삶의 자연성과 다양성을 외치지만, 막상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이 자연성을 조작하고 다양성을 억압할 가능성이 다분한 기술문명을 과대포장해서 미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디즈니 경영진이나 콘텐츠 제작자들이 현재 최첨단 기술로 각광받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유전자 공학, 인간복제 기술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고찰이나 반성을 한 적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적어도 현재까지 <아바타>를 비롯해 디즈니에서 제작하거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콘텐츠 상당수는 이렇게 사유의 깊이가 결여된 기술 예찬론을 주된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

디즈니의 콘텐츠 제작 태도에 엿보이는 자기모순의 두 번째 이유는 이 회사가 내세우는 다양성 혹은 다원성이라는 가치가 자의적으로 설정된 지극히 모호한 개념이라는 점이다.

다양성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그저 자연적으로 주어진 영역까지인가, 아니면 인간이 임의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가?

다양성에 대한 물음에 대해 디즈니의 콘텐츠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적 올바름을 지지하는 수많은 이들도 그다지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어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첨단기술과 연관된 다양성 개념에 대해 정치적 올바름을 옹호하는 이들이 가진 생각은 허술하고 모호하다. 예를 들어 성전환 수술이 인간의 젠더 정체성에 다양성을 부여한다는 주장은 여러 모로 반박의 여지가 다분한 불완전한 주장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이나 유전

자 조작 기술처럼 인류의 신체 강화나 생명 연장에 최종적인 목적을 둔 기술들은 아직 이 기술들이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경우 발생할 파급효과에 대해 제대로 된 전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의료계나 법조계 모두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디즈니 경영진이나 콘텐츠 제작자들이 영상 속에 담긴 환상의 매력을 이용해 아직 해당 분야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조망하지 못한 인체 강화나 유전자 조작, 정신전송 기술의 미래에 대해 단정적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반면 성경은 인체를 개조하거나 강화하려는 기술들에 적용될 수 있는 확고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자연적으로 부여된 종적 특성을 거역하거나 왜곡할 만한 행위들은 율법에서 엄히 금지된다.

이종교배와 수간, 그리고 남녀의 자연적인 성적 정체성을 거스르는 행위들은 성경에서 형벌의 대상이 된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하여 정하신 섭리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진다.

다만 기독교계에서도 부분적인 장기이식이나 체내에 이식하는 보조장치 등 인간의 종적 특성 자체를 조작하지 않는 선에서의 의료 기술 활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즈니가 인수해서 경영하고 있는 미국 내 SF 프랜차이즈들이 선보이는 생체 기술 활용 방식이나 메시지는 인간의 허약한 육신을 반드시 개조하거나 더 완전한 복제체로 교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아바타> 시리즈가 전달하는 이런 디즈니식 인간 이해는 기독교적 관점으로만 아니라 인간 실존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반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과도하게 실험적이고 임의적이며 무책임한 사고방식으로 판단된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아바타> 시리즈 속 기술문명을 통한 인간 개조에 대한 예찬은 삶의 자연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올바름 이념과는 상충된다. 즉 디즈니가 <아바타> 시리즈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확연한 내적 모순의 문제를 안고 있다.

**LA 동부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송재호 목사 부회장: 박선호 목사 회계: 최현규 목사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
늘푸른교회	박선호 목사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
유니온교회	
할렐루야한인교회	송재호 목사
나성한미교회	
선한목자교회	고태형 목사
호산나교회	라세염 목사
주님의교회	김병학 목사
행복한 교회	장경훈 목사
남가주주님의교회	최현규 목사
동부사랑의교회	우영화 목사
브리지교회	박진석 목사
좋은비전교회	최준우 목사
나성교회	정동석 목사
글로벌선교회	김지성 목사

**토기장이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영어 예배 오전 10:00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주소 및 전화** Potter's Community Church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임경남 담임목사

# “예수를 본받는 교회, 믿는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 신년 특별부흥회

일시 : 2023년 1월 5일(목) ~ 8일(주일)  
주제 : 맡기신 소명 이루리(엡 4:11,12)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국윤권 담임목사

###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40
- 3부예배 오전 11:30
- 교육부 오전 11:30
- 수요 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 충현선교교회

[choonghyun.org](http://choonghyun.or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신승훈 담임목사

### 예배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30
- 3부예배 오후 1:00
- 라티노 오후 5:00
- GCEM 오후 1:00
-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주님의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2022년으로 창립 23주년을 맞은 주님의 영광교회는 LA다운타운, 그랜드와 워싱턴이 만나는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구원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하여 제자되기를 힘쓰며, 2세가 잘되도록, 또한 선교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 성탄을 축하합니다



벨리채플



OC채플

-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 금요일성성집회 저녁 7:45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 오후 7:30 수요영성집회
- 오전 5:30 새벽기도(월-금)
- 오전 6:00 (ZOOM)(토)



대한예수교장로회미주합동총회

최혁 담임목사 | [icc.office1@gmail.com](mailto:icc.office1@gmail.com) | (818) 363-5887

[www.icccla.org](http://www.icccla.org)

벨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OC채플: 235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